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전북 자치경찰
사무 평가 우수 시군 선정

정읍시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한 '자치경찰사무'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취약계층을 위한 방법시설 설치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 한 해 동안의 자치경찰 사무 추진 실적과 주요 시책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진행됐다. 시는 차별화된 시책과 실적을 인정받아 3개 우수 시군 중 하나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시는 '취약계층 방법시설물 설치사업'을 통해 주거 안전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이나 3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2025년 깨끗한
축산농장 19개소 신규 지정

부안군은 2025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총 19개소의 농장이 신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축산농가가 스스로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주변 지역의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인증 제도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부안군의 깨끗한 축산농장은 총 158개소 49, 돼지 12, 닭 76, 오리 21에 이르렀다. 군은 내년에 10곳의 신규 지정을 목표로 168곳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의 신청을 받아 현장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주요 평가 내용은 축사 바닥과 분뇨 처리시설 관리상태, 농장 악취 발생 수준, 축사 내·외부 소독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바이오 일자리 생태계 혁신 시동

정읍시, 지·산·학·연 '월팀' 결성

정읍시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자체와 산업계, 학계, 연구계를 아우르는 대규모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19일 JB연수원 아우름 캠퍼스에서 '일자리창출 생태계 조성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갖고,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고용 생태계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AI 산업의 급성장과 노동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 정읍만의 경쟁력 있는 일자리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구성됐다. 출범식에는 바이오 기업인 노보렉스를 비롯한 20개 기업 대표와, 전북연구개발특구 등 7개 R&D 혁신기관장, 그리고 제약 분야 인력 양성을 담당할 전북대 약학대 제약산업미래인력양성센터장 등 총 30여



개의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 행사는 유진혁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장의 기조연설로 문을 열었으며, 이어 오라를 벤처투자 배준학 대표가 '바이오산업 육성 및 일자리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정읍=김대환기자

특히 이날 정읍시는 노보렉스, 케이사이드 등 20개 참여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는 △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및 정보 공유 △지역 맞춤형 고용 창출 및 인재 양성 공동협력 △기업 하나당 청년 1명을 채용하는 '1기업 1청년 일자리 운동' 전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이번 얼라이언스 출범을 계기로 현장의 변화와 요구를 미래지향적으로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혁신과 협업을 기반으로 좋은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제공함으로써 미래 청년 인재들이 정읍에 정착해 기반을 다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고창=김영식기자

“군민 의견 · 참여 모여 더 빛나는 공동체로”

고창군, 이춘희 전 세종시장 초청 ‘군민 행복 고창포럼’ 개최

고창군이 지난 18일 오후 등리국당에서 고창군 해리면 출신인 이춘희 전 세종시장을 초청해 '함께 할수록 더 행복한 고창, 더 빛나는 주민자치'를 주제로 군민 포럼을 열었다. 이춘희 전 시장은 건설교통부 차관,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역임하고 민선 6~7기 세종시장으로 재임하며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 중심의 도시 발전에 노력했다. 특히 주민 참여와 삶의 질을 강조하며 세종시가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하는 기반이 됐다. 이춘희 전 시장은 "주민자치는 단순히 정책의 집행을 넘어,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며, 지역의 발전과 공동체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며 "군민들의 참여와 의견이 모일 때 고창은 더욱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창군에서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함께 실천하고, 성



과를 공유하며, 새로운 비전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주민자치의 시작은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 이웃과 소통하며, 필요한 제안과 참여를 이어가는 등 우리 일상 속에서 이를 수 있는 작은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방스런 고창인으로 대한민국 지방행정 역사에 한 획을 그어주시는 이춘희 전 시장님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군민의 참여와 관심으로 더욱 빛나는 세계유산 도시 고창을 향해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순국선열의날’ 계기 지역출신 독립유공자 서훈 확정

고창군, 김영해 · 김용우 · 임택재 등 3인...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 위해 헌신

고창군이 '제86회 순국선열의날(매년 11월17일)'을 맞아 고창출신 독립운동가 3명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독립유공자 서훈을 확정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훈이 확정된 인물은 △김영해(대통령표창, 3·1운동) △김용우(대통령표창, 3·1운동) △임택재(예측장, 국내항일)로, 모두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고창의 자랑스러운 선열들이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김영해 · 김용우 선생은 1919년 3월 21일 무장반일대에서 벌어진 3·1 독립만세운동에 참여

해 일제의 탄압에 맞섰다. 두 선생은 만세운동 참여로 체포돼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항일 의지를 실천하며 독립운동에 기여했다. 애족장을 받은 임택재 선생은 1932년 일본 아바구치 고등학교 재학 중 항일 격문을 배포해 퇴학 처분을 받고, 이후 서울로 돌아와 조선반제동맹 등 항일 단체에서 활동하며 국내 항일운동의 중심에서 일제에 맞서 싸웠다. 선생은 일제에 의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등 치열한 항일투쟁을 이어온 공적이 인정됐다. 이번 서훈은 고창군이 2023년부터 추

진해 온 '고창 출신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의 결실이다. 군은 2024년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에 군비 2600만원을 투입해 용역을 실시했다. 발굴된 자료를 토대로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사료를 면밀히 조사하여 총 103명의 포상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 결과, 고창군은 올해 3.1절 · 광복절 등을 계기로 총 11명의 독립유공자가 추가로 서훈을 받았으며, 이번 순국선열의날 서훈까지 포함하면 고창 출신 독립유공자는 모두 118명에 이른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선정

부안군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국비 약 12억 6000만원을 확보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저장을 위해 주택과 건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지원 설비 설치비용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에너지원에 따라 설치비용의 최대 88%를 지원하며 자부담률은 약 20%로 군민 부담을 최소화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사업 대상 지역은 도서 지역인 위도면을 제외한 12개 읍·면으로 주요

설치 계획은 태양광 발전설비 주택(3kW) 349개소, 건물(100kW 이하) 50개소,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1개소, 태양열 발전설비 주택(13.6㎡) 13개소, 지열 발전설비 주택(17.5kW) 31개소이다. 군은 공모 신청을 위해 지난 4월 컨소시엄을 선정했고 5월까지 주요조사를 거쳐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했으며 7월 공개평가와 10월 심층평가를 거쳐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인정받아 최종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현장 중심 적극행정... 생활불편 해소 · 안전 강화

송산동 도시계획도로 · 기적의 놀이터 등 생활 현장 신속 점검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난 18일 송산동 도시계획도로와 천사하이로즈 주차장 기적의 놀이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사업 현장을 잇달아 방문했다. 이 시장은 현장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펴, 예산 절감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공사가 지연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 또는 시

설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지점을 시장이 직접 확인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순정축협에서 송령교로 이어지는 송산동 도시계획도로 공사 현장을 찾은 이 시장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강조했다. 그는 "신규 다리는 기존 다리와 최대한 밀착 설치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가각 정비를 강화해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교통안전 수준



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제21회 한국 환경교육 한마당’ 성료

정읍시가 19일 정읍체육관에서 '제21회 한국 환경교육 한마당 in 정읍'의 화려한 막을 올렸다. 전국 환경교육 관계자와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환경교육의 미래를 모색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꾸며졌다. '열려라 함께, 함께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정읍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가 주관한 전국 단위 행사다. 행사는 정읍체육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장산생태탐

방원으로 자리를 옮겨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개막식은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이학수 시장의 감사패 수상, 환경교육도시 비전 영상 상영, 퍼포먼스, 카드섹션 기념 촬영 등으로 다채롭게 채워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정읍시를 비롯해 정읍교육지원청,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내장산생태탐방원, 한국수자원공사 정읍관지사, SK넥슬리스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다년간 '환경교육 활성화 업무협약(MOU)'이 체결돼 눈길을 끌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려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